■민족문화연구 제107호(2025.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33-061.
http://doi.org/10.17948/kcs.2025..107.033

고려후기『華嚴經綱要』의 간행 및 동아시아 불교계 유통*

박용진(朴鎔辰)**

목 차

1. 머리말
2.『화엄경강요』의 전본 및 특징
3. 고려시대『화엄경강요』의 수입과 간행
4.『화엄경강요』의 동아시아 불교계 유통
5. 맺음말

국문초록

『화엄경강요』는 唐代의 화엄종 승 청량 징관이 9세기 초에 편찬한 화엄사상의 강요서로 그간 일본 금택문고 소장의 필사본 2종만이 알려져 있었다. 최근 고려대 도서관에서 1324년에 간행된 고려 후기 목판본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 고려대본은 남송의 章溥가 1155년 기록한 후서와 고려의 古帆이 1324년 쓴 발문을 포함하고 있어 불교문헌학적 및 불교 교류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일본 금택문고에 소장된 1289년 필사본은 칭명사 승 智照가 강학을 위해 필사한 것으로, 이체자와 통용자가 다소 많지만 교정 기록이 남아 있어 원본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화엄경강요』는 당나라에서 편찬된 후 송나라를 거쳐 고려와 일본으로 전파되었는데, 특히 고려에서는 대각국사 의천이 수집하여『교장총록』에 수록하였고, 이후 고려시대 12-13세기의 활용은 잘 나타나지 않고, 14세기 원대에 판본을 수입해 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13세기 고산사 등을 통해 수입되어 칭명사 등에서 유통되었다. 기타 요나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1044659)
**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

라와 원나라의 불교 문헌에서도 인용되는 등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에서 화엄사상 연구에 활용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고려대본은 국내외 유일의 목판본으로, 동아시아 불교문헌 및 교류 연구의 귀중한 자료에 해당한다. 특히 금택문고 필사본과의 대교 및 교감 연구를 통해 원본에 가까운 정본을 확립할 수 있고, 나아가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화엄 전적과 사상의 교류를 구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화엄경강요』, 의천, 교장총록, 징관, 장부, 정원, 의화

1. 머리말

『大方廣佛華嚴經綱要』(이하, 『화엄경강요』)는 당대 796-805년경 청량 징관이 편찬한 불서이다. 『화엄경강요』는 징관 자신의 『대방광불화엄경소』, 『화엄경수소연의초』, 『화엄행원품소』의 사상적 기초 위에 일부 『화엄경』 사상을 추가하여 편찬하였다.[1] 본서의 편찬은 고려대본 발문 및 일본 금택문고본에 수록된 징관의 自序에 의하면, 『화엄경』이 호한하기 때문에 그 현묘함을 촬요하여 홍법과 후학에 도움이 되고자 齊杭·鄭餘慶·高郢 등의 요청으로 찬술한 것이었다.

이 『화엄경강요』의 동아시아 각국 전래 및 유통은 日本 神奈川縣 金澤文庫 소장의 필사본 2종만이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이하, 고려대본)의 14세기 고려후기 간행본이 새롭게 확인되었다.[2] 이 고려대본에 대해서는 고려 교장과 관련하여 간략히 언급된 바 있지만,[3] 상세한 서지 및 내용의 분석이나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전래 및 유통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

『화엄경강요』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본의 금택문고 소장의 2종에 대해서

---

1) 林鳴宇·馬淵昌也, 『華嚴經綱要校釋』, 上海辭書出版社, 2017, 53-58면.

2) 고려대학교 도서관 청구기호 : '만송 貴 367', '晩松金完燮文庫/389017/고려대학교'

3) 고려대장경연구소편, 『新編諸宗教藏總錄 : 收錄文獻 總覽』, 고려대장경연구소출판부, 2019; 박용진, 「고려 教藏의 고려 및 조선시대 유통과 전승」, 『서지학연구』 83, 한국서지학회, 2020; 최애리, 『신편제종교장총록』 수록 교장 현존본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20.

이루어졌다. 초기 연구는 징관의 저작을 검토하는 가운데 간략히 언급되었다. 여기에서 금택문고에 현존하는 것을 소개하는 한편 명나라 덕청이 提挈한『화엄강요』80권과는 전혀 별개의 것임도 함께 언급하였다. 명대 찬술의『화엄강요』는 징관의『화엄대소초』의 요의를 제설하고, 그것과『80화엄경』의 본문을 회합하였고, 저자의 보의가 들어있는데,『화엄경강요』3권과는 동명이본의 관계에 해당한다.[4] 최근 일본 금택문고본 2종을 대교하고 주석한『華嚴經綱要校釋』이 간행되었는데, 본서의 해제에서『화엄경강요』의 저작시기, 진위문제, 여타 징관 찬술의 화엄경소와의 관련 대조, 사상발전, 유전 및 소의 저본 등을 개관하였다.[5] 이 책에서는 금택문고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였고, 목판본인 고려대본을 참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자이동의 대교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고려에서 수입하여 간행한 본서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에서의 유통과 의의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고려대본『화엄경강요』의 서지 및 특징을 중심으로 일본 금택문고본과 대교하여 상호 관련 및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화엄경강요』의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제본의 간행과 유통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화엄경강요』의 성립과 전개, 동아시아 불교계의 유통, 정본화 등의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화엄경강요』의 전본 및 특징

1) 고려대 소장본『화엄경강요』의 서지사항 및 특징

당대 청량 징관이 찬술한『화엄경강요』는 3권본이 알려져 있고,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은 국내외에 전존하는 최고의 목판 간행본이다. 이러한 고려대본의 서지 및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본서의 서지사항을 간략히 정리

4) 亀川教信,「金沢文庫華嚴逸書に就て」,『龍谷学報』309, 1934, 164-181면; 鎌田茂雄,『中国華厳思想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70 제2쇄, 207면, 319면.
5) 林鳴宇·馬淵昌也, 앞의 책, 2017.

하면 다음과 같다.[6]

권수제: 권상 결락 / 大方廣佛華嚴經綱要 卷中 / 大方廣佛華嚴經綱要 卷下
권말제: 大方廣佛華嚴經綱要 卷上/ 大方廣佛華嚴經綱要 卷中 /大方廣佛華嚴經綱要 卷下
表題 및 제첨제: '健拏綱要' / 판제: 판수·판미제 혼재 : '綱要'
판종: 木版本
간사년: 泰定 元年(충숙왕 11, 1324년)
저자: 大興唐寺上都僧統淸凉國師澄觀述
후서: 紹興乙亥(1155)十月丁亥十一月乙酉孫哀子章溥濬溉濯泣血題綱要後序
발문: 太定元年甲子(1324) 六月日寓紫玉山息菴古帆謹題跋
권책 및 장수: 3卷 1冊, 67장(卷上: 19張, 卷中: 22張, 卷下: 22張, 跋文: 4張)
판식: 上下單邊, 無界 / 행자수 : 1板 30行 18字 / 책 크기 : 18.6×26.6㎝
전광: 57.5×21.4㎝, 반광 : 卷上 : 14.1×21.4㎝, 卷中 : 13.0×21.3㎝
지질: 楮紙 / 장정: 線裝(5針綴), 1張 2面

본서의 권수제와 권미제는 모두 '大方廣佛華嚴經綱要'이며, 판제는 판수와 판미에 보이며 '綱要'이다. 특징적인 것은 표제의 제첨에 묵서로 '健拏綱要'라고 기록되어있다. 이 '健拏綱要'의 '健拏'는 산스크리트어 Gandavyuha의 'Ganda'를 음사 표기한 것으로 『대방광불화엄경』에 해당한다.

또한, 본서는 목판본으로 상하단변에 계선이 없고, 1板에 30行 18字의 판식이다. 이 책은 권자본의 행관이지만 현재는 선장본으로 개장되어있다. 1장 4면으로 제책되어있고, 반엽 7행, 8행, 8행, 7행이 1판에 해당한다. 1판의 크기는 57.5×21.4㎝이며, 반광의 높이는 대체로 21.3-21.4㎝이다. 본서에는 등재본을 필사한 인물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神器書'가 권하 제13장의 제18행 하단에 판각되어 있다.

본서는 권상의 卷首題 1張 분량이 결락되어 있고, 卷中은 '第九釋經名題者, 卷下는 '第六他化自在天宮會'로 시작한다. 본서의 권하 책말에는 원본의 후서가 있고, '紹興乙亥(1155)十月丁亥十一月乙酉孫哀子章溥濬溉濯泣血題綱要後序'라

6) 앞의 고려대장경연구소편, 『新編諸宗教藏總錄 : 收錄文獻 總覽』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하여 남송 1155년에 章溥 등이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 '太定元年甲子(1324) 六月日寓紫玉山息菴古帆謹題跋'이라 하여 본서의 유통과 간행을 알 수 있는 고범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의 소장사항을 살펴보면 고려대 도서관 '晩松金完燮文庫'의 장서로 김완섭의 소장서가 고려대 도서관에 기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서에는 다수의 인기가 확인되는데, 卷中의 권수제에 반달형朱印, 四角朱印 '自■樂印', '非雲句', 卷下에 판독불가의 주인 2과가 날인되어있고, 冊首에는 '高麗大學校藏書' 등이 확인된다.

끝으로 본서는 紙匣에 보관되어있고 제첨이 붙어 있으며 '健拏綱要上下 1冊'이 묵서되어 있다. 앞표지의 내면에는 '心耕書屋'이 묵서되어 있고, 본문의 광곽 위 天頭에 本文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본문에는 朱點으로 標點되어있고, 주요 文句에는 작은 원 모양의 傍點을 붙인 것으로 미루어 교학 등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려대본과 金澤文庫本『화엄경강요』의 비교

『화엄경강요』의 현전본 가운데 최고본은 금택문고 소장의 필사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대본과 금택문고본을 비교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고려대본과의 비교를 위하여 금택문고본 2종의 서지사항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7]

〈표 1〉 금택문고본『화엄경강요』2종의 서지사항

서지항목	金澤文庫本(1)	金澤文庫本(2)	비고
판종	필사본	필사본	
장정	점엽장	점엽장	
책크기	25.4×15.5	25.2×17.0	縱×橫

7) 본서의 서지사항은 제1본과 제2본을 열람하여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文化廳文化財部美術學藝課,『稱名寺聖教目錄(1)』, 平成十八年, 8-9면과 林鳴宇·馬淵昌也,『華嚴經綱要校釋』, 上海辭書出版社, 2017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행자수	반엽 7행 16-20자	반엽 7행 17자	
간사년	鎌倉時代	鎌倉時代	
간사자	智照	智照(불명?)	
권수제	方廣佛華嚴經綱要	方廣佛華嚴經綱要	
권미제	方廣佛華嚴經綱要	方廣佛華嚴經綱要	
후서	紹興乙亥(1155)十月丁亥十一日乙酉 孤哀子章溥濬濈濯 泣血題		章溥 題記
필사기	自正應二年(1289)三月十五日至同二十五日於武州金澤爲兩三人談之了 華嚴宗智照記		智照 筆寫記

금택문고본의 권수제와 권미제는 모두 '大方廣佛華嚴經綱要'이다. 소장본은 모두 점엽장이고 필사본이다. 제1본은 행관이 반엽 7행 16-20자로 행자수가 일정하지 않고, 필체는 유연하며 하권의 발문 다음에 지조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기가 있다. 본서의 권상은 「징관 서문」, 「啓」, 권중의 앞부분 7-8행 분량이 결락이지만, 권중, 권하, 발문 등은 모두 완전하게 남아있다. 제2본은 권중의 앞부분 6枚半이 결락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완전하게 남아있어 제1본과 상호 보완할 수 있다. 제2본은 반엽 7행 17자로 일정한 행자수의 행관이고, 자체는 제1본과 달리 유려치 않으며, 제1본과 동일 필적으로 추정되는 지조의 필사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필사기는 1289년에 武州 金澤에서 智照가 쓴 기록에 해당한다. 智照는 1289년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武州 金澤, 즉 현재의 稱名寺에서 『화엄경강요』를 강의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양본은 교학 연구 및 강의를 위해 필사 활용된 셈이다.

금택문고본 2종의 문자이동을 대교하면 일부 이문자가 있지만 훈독 표기, 교정 문자 및 위치, 발문, 필사기 등이 동일하다. 즉, 양서의 성립과 관련하여 남송 원본의 발문인 '紹興乙亥(1155)十月丁亥十一日乙酉 孤哀子章溥濬濈濯泣血題'와 일본 필사 기록인 '自正應二年(1289)三月十五日至同二十五日於武州金澤爲兩三人談之了 華嚴宗智照記'[8]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으로

8) 「筆寫記」 『大方廣佛華嚴經綱要』 卷下(文化廳文化財部美術學藝課, 『稱名寺聖教目錄(1)』, 平成十八年(2006)三月, 8-9면. 갑본의 일련번호 100 〈010-0001-03〉, 을본의 일련번호 103 〈010-0002-03〉이다.

보아 제2본은 제1본을 저본으로 필사하였거나 혹은 저본을 중심으로 제1본을 참고하여 필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9]

이상에서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고려대본과 금택문고본의 체제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화엄경강요』의 체제와 내용에 대해 고려대본과 금택문고본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화엄경강요』의 체제와 내용

권별	구분	會名	品名
권상 (19장)	澄觀 序文	고려대본, 금택문고 제1본 결락	
	啓	7언 18구(고려대본 전6구 결락, 금택문고 제1본 전반부 결)	
	본문 第一教起因緣-第八傳譯感通	第一教起因緣, 第二教門權實, 第三所詮義理, 第四辯定所宗, 第五修證淺深, 第六彰教體性, 第七部類品會, 第八傳譯感通	
권중 (22장)	본문 第九釋經題目	第九釋經題目	
	본문 第十隨文解釋	第十隨文解釋	
	一.擧果勸樂生信分	第一菩提場會	世主妙嚴品第一, 如來現相品第二, 普賢三昧品第三, 世界成就品第四, 華藏世界品第五, 毗盧遮那品第六
	二.修因契果生解分	第二普光明殿會	如來名號品第七, 四諦品第八, 光明覺品第九, 菩薩問明品第十, 淨行品第十一, 賢首品第十二
		第三忉利天宮會	升須彌山頂品第十三, 須彌山頂上偈讚品第十四, 十住品第十五, 梵行品第十六, 初發心功德品第十七, 明法品第十八
		第四夜摩天宮會	升夜摩天宮品第十九, 夜摩宮中偈讚品第二十, 十行品第二十一, 十無盡藏品第二十二

9) 林鳴宇·馬淵昌也, 앞의 책. 64면에서 양본은 동일 저본인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권하의 본문에서 '用'자 옆에 '因歟'라는 동일한 교기가 있다. 또한 제2본은 발문에서 '書'를 '盡'으로 기록하는 등 일부 오사가 있다.

		第五兜率天宮會	升兜率天宮品第二十三, 兜率宮中偈讚品第二十四, 十迴向品第二十五
권하 (22장)	二.修因契果生解分	第六他化自在天宮會	十地品第二十六
		第七普光明殿會	十定品第二十七, 十通品第二十八, 十忍品第二十九, 阿僧祇品第三十, 如來壽量品第三十一, 諸菩薩住處品第三十二, 佛不思議法品第三十三, 如來十身相海品第三十四, 隨好光明功德品第三十五, 普賢行品第三十六, 如來出現品第三十七
	三.托法進修成行分	第八普光明殿會	離世間品第三十八
	四.依人證入成德分	第九逝多林會	入法界品第三十九
발문 (4장)	章溥 題記		
	고려대본 발문(綱要後序) / 일본 금택문고본 필사기		

『화엄경강요』의 구성은 위의 〈표 2〉와 같이 「징관서문」, 「啓」, 본문인 10문 해설, 「章溥題記」, 발문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대본은 「징관서문」과 「啓」의 6구 결락, 금택문고 제1본 「징관서문」, 「啓」, 본문 일부 결락, 금택문고 제2본은 권중의 6枚半 결락이지만 상호 보충을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본문은 「화엄경」을 모두 10문으로 나누어 『화엄경』의 강요를 제시하였는데, 10문의 내용은 교기인연, 교문권실, 소전의리, 변정소종, 수증천심, 창교체성, 부류품회, 전역감통, 석경명제, 수문해석으로 이루어졌다. 징관의『대방광불화엄경소』역시 10문의 ①教起因緣, ②藏教所攝, ③義理分齊, ④教所被機, ⑤教體淺深, ⑥宗趣通局, ⑦部類品會, ⑧傳譯感通, ⑨總釋經題, ⑩別解文義으로 경의를 해석하였는데, 10문으로 구분한 것은 유사하지만, 10문의 제목은 다소 차이가 있다. 끝으로 권하에 이어 「章溥題記」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3본 모두 공통이지만, 고려대본은 '綱要後序' 등 2종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수입 및 간행 연기를 알 수 있고, 금택문고본에는 필사기가 수록되어 있어 일본의 유통 시기를 알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

국, 고려대본과 금택문고본은 필사나 간행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남송본을 저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권 등 전반적인 구성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화엄경강요』의 본문 내용에 대해 3권 각권의 권수와 권말에 한정하여 문자이동을 대교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화엄경강요』의 문자이동 대교[10]

권별	위치	고려대본	금택문고본	대교 내용
권상	2-2	爾	尒	이체자
	2-2	坦坦	坦〃	金本: 同字 표기
	2-4	無	无	이체자
	2-6	亦		金本: 초서 이체자
	2-17	諸佛故	결락	金本: 우측 '諸佛故' 추기, 교정
	2-18	礙	导	이체자
	2-20	識	결락	金本: 본문 우측 '識' 추기, 교정
	2-21	土情	亡情	高本: '土'자 형태이나 '亡'자로 추정
	2-22	已	已	高本: 목판본 판각례('已'자를 '已'자로 刻)
	3-1	礙	导	이체자
	3-2	不礙	결락	金本: 본문 우측 '不礙' 추기, 교정
	18-7	慧	惠	통자
	18-11	彌	弥	이체자
	18-21	陀	陁	이체자
	18-29	譯	傳	金本: 본문 우측 '譯'자 추기, 교정
	19-1	行	결락	金本: 본문 우측 '行'자 추기, 교정
	19-3	辨	弁	金本: '弁'의 본자는 '辨'
	19-15	盥	興	金本: 본문 상단 '盥'자 추기, 교정
권중	1-3	摠	惣	이체자
	1-6	三昧海經	三昧經	金本: 본문 우측 '海'자 추기, 교정
	1-6	棼	棼雜	金本: '林+木'으로 표기
	1-11	無盡藏	無盡	金本: 결락 추정

10) 문자이동 대교표에서 '위치'는 고려대본의 장차와 행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앞의 숫자는 張次, 뒤의 숫자는 行次를 의미한다. 금택문고본의 제1본을 대교본으로 하였으며, 題記는 고려대본과 금택문고본 2종을 모두 대교하였다. 대교내용의 '高本'은 고려대본, '金本'은 금택문고본을 의미한다.

	1-11	喩	결락	金本: 본문 우측 '喩'자 추기, 교정
	1-11	大	결락	金本: 본문 우측 '大'자 추기, 교정
	2-27	三開敷菡萏	三開敷菡萏	金本: 본문 상단 '菡萏' 추기, 교정
	21-2	兜率宮	兜率宮	金本: 이체자
	21-24	着	著	이체자
권하	1-13	此地此能持故	此地能持故	高本: '이 지위가 능히 지닌다'는 문의에 의거 '此'자는 오기로 추정
	1-15	慧	惠	통자
	2-16	初地壇	初壇	金本: 본문 상단 '地'자 추기, 교정
	23-4	探元記	探玄記	金本: 교정
	23-4	正元	正元	金本: '貞元'으로 校記
	23-14	華嚴院	花嚴院	통용자
	題記	失喜	共喜	金本: 문의에 의거 '共'자는 오기 추정
	題記	昭布	照布	金本: 문의에 의거 오자로 추정
	題記	上窮	亡窮	高本: '上'자는 '亡'자의 변괴 형태

위의 고려대본을 비롯한 현행본의 문자이동을 대교한 결과, 그 유형은 결자, 오자, 이체자 등으로 나타났지만 결자나 오자 등은 본문에 추기를 통해 교정하여 대부분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목판본인 고려대본이 필사본인 금택문고본에 비해 결자나 오자가 적었으며, 금택문고본은 '爾'를 '尒'로 표기하는 이체자나 '慧'를 '惠'로 필사한 통용자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권하의 제23장에는 원본을 답습한 것으로 추정되는 '探元記'와 '正元'의 문구가 보이는데, 이에 대해 금택문고본은 '探元記'는 '探玄記', '正元'은 '貞元'으로 교정하였다. '探元記'는 법장의 『탐현기』, '正元'은 당대 연호 '貞元'이므로 고려대본은 오자이다. 다만, 이는 고려후기 수입본의 글자를 그대로 수용한 가능성이 있어 향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章溥 題記」에는 이문자가 있는데, '失喜亟欲手書鏤之板'의 '失/共', '庶幾佛旨昭布 垂利亡窮'의 '昭/照'가 그것이다. 해당 부분의 원문은 '先公得之 失喜亟欲手書 鏤之板 以廣其傳'이고 역문은 '선공이 그것을 얻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급히 필사하여 판에 새겨 그것을 널리 전하고자 하였다.'라고 해석되므로 금택문고본의 '共'자는 오자로 추정된다. 다음 부분의 원문은 '恭値

外除 飯僧遍施 庶幾佛旨昭布 垂利亡窮 凡厥誦持 所集善勳 併爲先公之歸焉.'이고 역문은 '불지를 환하게 펴다'라고 해석되므로 금택문고본의 '照'자는 오자로 추정된다. 기타 내용은 목판본인 고려대본과 문자이동을 비교하면 일부 오사와 이체자가 있지만 대부분 동일하다.

3. 고려시대『화엄경강요』의 수입과 간행

1) 고려전기 의천의『교장총록』과『화엄경강요』

『화엄경강요』는 당대 청량 澄觀(738-839)의 찬술이지만 현전 자료에서는 본서의 찬술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 본서가 신라나 고려에서 확인되는 첫 기록이자 유일한 기록은 의천이 1090년에 편찬한『신편제종교장총록』(이하,『교장총록』)의 '大華嚴經' 장소 부분에 '綱要 三卷 澄觀述'이라 기록된 것이다. 그렇다면 의천이 조성한 고려 교장에『화엄경강요』는 어떻게 입장되었고, 그 저본과 계통은 어떠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의천의 교장 조성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의 교장 조성은 1073년(문종 27)에 국가적 사업으로 전개되었는데, 당시 의천은 교장을 수집하는 사업의 시작을 제불에 고하는 발원소를 세자를 대신하여 지었다. 이 발원소는『대각국사문집』에「代世子集教藏發願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있고, 여기에서 불교의 경론을 해석하는 소초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를 비롯한 송과 요나라 등에서 이를 수집하여 대장경과 같이 一藏의 교장을 조성할 것을 서원하였다.[11] 이러한 의천의 교장 수집은 국내외를 통해 이루어졌으니 다음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A)-①의천은 불경과 경서 1천 권을 바쳤으며, 또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할 것을 왕에게 청하고 요와 송에서 4천 권에 달하는 서적을 구입하여 모두 간행하

11) 義天,「代世子集教藏發願疏」,『대각국사문집』권14(『한국불교전서』권4, 552면), "雖經論而具矣 然疏鈔以闕如 欲以于古于今 大遼大宋 凡有百家之科教 集爲一藏以流通." 이후『한국불교전서』는『한불전』으로 약칭한다.

였다.[12]

(A)-②공사 간에 경적이 거의 모두 흩어져 없어졌다. 그리하여 거금을 들여 중국과 거란과 일본에서 책을 구입했다. 또 선종 8년(1091) 봄에 남쪽으로 내려가 수색해서 얻은 책이 4천여 권이 되었다. 모두 먼지와 좀이 붙고 슬어서 책장이 떨어진 것을 모두 수습하여 상자에 넣어 돌아왔다. 흥왕사에 敎藏司 설치를 주청하였다. 명류를 초치하여 오류를 교정하여 간행한 결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문적이 크게 갖추어져 학자들이 기뻐하며 의지하였다.[13]

위의 인용자료를 정리하면 의천은 1073년부터 고려 국내에서 교장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송, 요, 일본 등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여러나라에서 장소를 구하였다. 특히, 의천은 1085년 송나라에 직접 가서 불교계와 교류하는 한편 장소를 수집하였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수집한 장소수는 권수는 달리 기록되었지만 국내외 각 4천여 권을 수집하였다고 하여 많은 장소를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장 조성 사업은 1090년을 전후한 선종대(1083-1094)에 일단락되어 『교장총록』을 편찬하였는데 수록 장소는 1,088종 4,877권이었으며,[14]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두고 교장을 간행하여 국내외에 유통하였다.[15] 이상과 같이 『화엄경강요』는 국내의 전승 혹은 송나라에서의 수입을 통해 의천의 교장에 입장되었고, 그 장소 목록인 『교장총록』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천은 1085년 송나라에 가면서 고려에 전승되고 있던 많은 화엄종의 전적을 가지고 갔고 1086년 귀국시에는 다수의 장소를 수입하였다. 의천의 송 불교계와의 교장 교류 가운데 징관의 찬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2) 『高麗史』 권90, 列傳 3, 大覺國師煦, "王以表乞令還國, 詔許東還. 煦至禮成江 (…) 煦獻釋典及經書一千卷 於興王寺 奏置敎藏都監 購書於遼宋 多至四千卷 悉皆刊行."

13) 「靈通寺碑銘」, 『대각국사외집』 권12(『한불전』 4, 592면), "官牒私褚。亡散幾盡。遂重購求書於中國以及契丹日本 又於辛未春 南遊搜索所得書 無慮四千卷 皆塵昏□斷 編簡壞舛 俱收並拾包匱以歸 請置敎藏司於興王寺 召名流刊正謬缺.使上之鉛槧 不幾稔間 文藉大備 學者忻賴."

14) 高麗大藏經硏究所編, 『新編諸宗敎藏總錄 : 收錄文獻 總覽』, 고려대장경연구소출판부, 2019.

15) 義天, 「代宣王諸宗敎藏開印疏」, 『대각국사문집』 권15(『한불전』 권4, 553면), "竊念 自從元聖 迄至妙躬 敦衆善以保邦 賴至仁而育物 顯祖則彫五千軸之祕藏 文考乃鏤千萬頌之契經 正文雖布於邇遐 章疏或幾乎墜失 苟存弘護 寔在(以下缺落)."

(B)-①원우 초에 의천이 바다를 건너왔다. 유사를 통해 말하기를 법사에게 예를 올리고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들기를 원하였다. 조정에서 받아들여 상서랑 양걸을 파견하여 인반하여 법사가 있는 곳에 이르러 만났는데, 자리 아래에서 예를 올리고 앉아 옆에서 모셨다. 아침저녁으로 가르침을 청하여 1년여가 지난 이후에 귀국하였다. 지엄이 지은『화엄수현기』,『공목장』,『무성섭론소』,『기신론의기』, 賢首가 지은『화엄탐현기』,『기신별기』,『법계무차별론소』,『십이문론소』,『三寶諸章門』, 淸涼이 지은『正元新譯華嚴經疏』, 圭峰이 지은『華嚴綸貫』은 모두 敎宗의 玄要인데 오대시기에 병화로 이미 망절된지 오래였다. 이에 이르러 의천이 정원에게 가지고 와서 의문을 자결하였다. 이미 일실한 전적이 세상 다시 행해졌으니 법사의 힘이었다.[16]

(B)-②『화엄대부사의론』 등 제종의 교장 3천여 권을 받들고 이달 12일에 명주를 떠나 19일에 바다를 건너서 국경에 도착하였습니다.[17]

위의 (B)-① 송승 정원의 비문의 기록에서는 의천이 송나라에 가면서 화엄종의 지엄, 법장, 징관, 종밀의 주요 장소를 가져갔고, (B)-②『대각국사문집』의 기록에서는 귀국 시『화엄대부사의론』 등을 수입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징관의 저술로는『정원신역화엄경소』[18]가 확인되나『화엄경강요』의 수입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한편,『대각국사문집』이나『대각국사외집』에서 확인되는 징관 찬술로는 의천이 정원에게 받은『大方廣佛華嚴經疏科文』,『貞元新譯花嚴經疏』, 裴休述의『淸涼碑文』이 있었고, 의천이 정원에게 기증 혹은 송부가 예정된 것은『貞元新譯經疏』와『隨文手鏡』이었다.[19] 이같이 징관의 찬술이 다수 확인되지만『화

16)「宋杭州南山慧因敎院晉水法師碑」,『玉岑山慧因高麗華嚴敎寺志』8(『中國佛寺史志彙刊』20), "至元祐初 義天航海而至 因有司自陳 願禮法師 親近承聽 朝廷從之 遣尙書郎楊傑 將會引伴 至法師所 禮足席下 坐則侍側 不敢拘禮,朝聽夕請 歲余而後歸 雲華所造 華嚴搜玄記 孔目章 無性攝論疏 起信論義記 賢首所造 華嚴探玄記 起信別記 法界無差別論疏 十二門論疏 三宝諸章門 淸涼所造 正元新譯華嚴經疏 圭峰所造 華嚴綸貫 皆敎宗玄要 五代兵火 久已亡絶 至是義天 持至座下 咨決所疑 旣佚之典 復行於世 法師之力也."

17) 義天,「至本國境上乞罪表」,『대각국사문집』권8(『한불전』4, 540면), "花嚴大不思議論等 諸宗敎藏 三千餘卷 於今月十二日 離明州 十九日放洋 已到國境."

18) 원문은 '正元新譯華嚴經疏'이나 '貞元' 연간 역경이므로 '貞元新譯華嚴經疏'가 바르다.

19) 박용진,「고려시대 敎藏의 송·요 불교계 交流와 전승」,『북악사론』13, 북악사학회, 2021 ; 박용진,「高麗 義天撰『新編諸宗敎藏總錄』과 동아시아의 華嚴 章疏」『한국학논총』42,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4.

엄경강요』는 『교장총록』에서 그 서명을 찾을 수 있을 뿐으로 간행이나 필사 등 유통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화엄경강요』가 『원종문류』에 인용되어 활용되었음을 추정하는 기록이 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 기타 『교장총록』에 수록된 『화엄경강요』의 저본 등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제4장 『화엄경강요』의 동아시아 불교계 유통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고려후기 『화엄경강요』의 수입과 간행

고려전기 의천의 『교장총록』에 수록된 『화엄경강요』는 간사본의 유통은 확인되지 않고, 14세기 고려후기에 원나라의 목판본을 수입하여 간행한 전본이 현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수입과 간행을 알 수 있는 본서의 권말에 기록된 후서와 발문 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C)-①한 털[一毛]로 모든 師子를 드러내고, 한 방울[微滴]로 바닷물[大海水]을 다 마시는 이치를 알고자 하거든, 『화엄경강요』를 보라. 이는 청량 징관이 『화엄경대소』 외에 齊·鄭·高 세 재상의 청으로 지은 것이다. 당시 문인들은 마음으로 받들어 祥符寺에서 판각하였고, 후에 송나라 재상 章의 후손 溥가 상부사 印本을 화엄 강사 義和에게서 얻어 필사·간행하여 끊어졌던 맥을 이었다. 그러나 해동에는 이 문헌이 없었는데, 東山老 日公이 남송 杭州에서 구해와 날마다 性海의 맛을 음미하였는데, '어찌 홀로 맛보겠는가' 하여 널리 펴고자 계림윤 이공 천[李梴]에게 간청하니, 공은 불심을 가진 군자라 기쁘게 받들어, 금년 봄 정월 그믐에 장인을 시켜 여름 6월 보름에 완성하였다.

大經은 원래 龍宮에 세 본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龍樹가 독송한 小本은 竺乾에서 유통되었고, 중국에 이르러 三代에 걸쳐 번역되니 그러므로 세 본의 이름이 되었다. 상부사의 『강요』는 齊公이 징관을 권하여 처음 지었고, 溥와 濬이 圓證대사 의화를 독려해 거듭 새겼으며, 이제 이공이 동산[神日]에게 받아서 고려에서 처음 열었으니, 중국과 고려[彼此]의 眞과 俗이 서로 도와 普法을 유통함이 어찌 이리도 같은가! 『화엄경강요』가 東韓에 전해진 것은 우리 두 공 덕분이니, 이를 외어 길이 無盡燈을 밝혀 어둠[昏闇]을 깨뜨리리라. 太定元年甲子(1324) 六月日寓紫玉山息菴古帆謹題跋

선각이 말하길 '가르침은 사람을 빌려 널리 전해지고, 사람은 가르침으로 깨달

음을 얻으니, 그러므로 가르침과 사람은 서로 의지해야 비로소 성취된다'라고 하였다. 계림윤 광정대부 검교첨의찬성사 李樞은 임금에게는 충성하고 불교를 믿었으니, 이를 일러 南齊 司空 謝顗이나 相國 蕭子良의 무리라 할 만하다. 공의 불문의 벗인 대장로 神日은 末法시대 叢林의 기린뿔[麟角] 같은 이시니, 일찍이 사방에 유력하려는 뜻을 가져 마침내 蘇州와 杭州에 이르렀다가 돌아오는 날에『화엄경강요』[大經綱要] 3권을 구하여 동쪽으로 가져왔으며, 목판에 새겨 널리 전하기를 간절히 하였으나 시주[檀緣]를 만나지 못하다가, 金雞年[辛酉年, 1321년] 臘月에 李公이 [결락 내용]을 받들어(이하 결락)[20]

위와 (C)-①과 같이 고려대본『화엄경강요』에는 1324년 6월에 쓴 紫玉山 息菴 古帆의 발문이 있고, 이어 찬자 미상의 발문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1324년 6월을 전후하여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서는 大長老 神日이 원나라를 순례하면서 소항 지역에서 구득하여 온 것으로, 雞林尹 李樞의 후원과 시재를 통해 간행하였다. 본서를 원에서 구입하여 온 東山老 日公은 뒤의 기록과 종합하면 당시 東山을 중심으로 활동한 大長老 神日임을 알 수 있다. 神日에 대해서는 1295년(충렬왕 21, 元貞 1)에 雲門寺 住持 眞靜大禪師 山立이 쓴「보각국존일연비」의 비음기에 문도 및 속제자의 列名 가운데 '首座 山林' 부분에 神日이 확인된다. 본서의 발문에는 '大長老神日 末季叢林之一箇麟角也'라 하였는데,『화엄경강요』가 간행된 1324년에는 大長老라 칭해지기 충분한 승계나 연령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일이 총림의 뛰어난 인물이라 하여 '麟角'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高麗國華山曺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과 연계하여 추정하면, 일연을 추종한 가지산문 인각사계의 출신

20)「跋文」,『大方廣佛華嚴經綱要』, "擧一毛畢衆師子 飮微滴窮大海水者 請看華嚴綱要焉 淸凉撰大疏外 因齊鄭高三相國之請所作也 當時頒文者心表頂戴之火 板于祥符寺 後宋相章之孫 溥得祥符印本 於華嚴講師義和 傳寫刊施 使絶緖復續之 然海東未有斯文 東山老日公 求得於南杭 日常游泳 性海之味 豈可獨嘗擬欲廣施 切囑雞林尹相李公樞 公乃佛心君子也 欣然頷(頷頷?)之 自今年春正月 月缺(?)而命工 夏六月 月滿而畢工 大經寵宮所藏 元是三本 龍樹只誦 小本流行 於乾竺(竺乾?) 洎于震旦 三代譯之 故三本之名■爾 祥符綱要 齊公逼澄觀而首著 溥濬督圓證而重彫 今李公受東山而肇開於■ 彼此眞俗相資而流通普法一何類也 綱要之播東韓者 賴我二公始矣 夫是之誦 長燃無盡燈 照破昏闇(金+巢) 太定元年甲子(1324) 六月日寓紫玉山息菴古帆謹題跋 先覺云 敎借人弘 人由敎悟 則敎與人 以相資而後 乃有成也 雞林尹匡靖大夫檢挍僉議贊成事 李公樞 忠於君 信於佛 可謂謝司空齊相國之徒歟 公之空門友大長老神日 末季叢林之一箇麟角也 早志遊方 遂及蘇杭 當將還之日 求得大經綱要三卷而東 切欲鋟梓遐傳 而未遇檀緣 越金雞臘月李公承(이하 결락)."

임을 암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21]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신일은 조계종 가지산문 일연계 인물로 인각사와 일정한 관련을 가지면서 동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신일은 어려서 사방에 유력하려는 뜻을 세워 원나라의 '蘇杭'을 찾았고, 귀국에 즈음하여 『화엄경강요』를 구득하였다고 하였다. 신일이 언제 원나라에 유력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본서의 간행 연기로 미루어 1324년 이전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는 일찍부터 사방에 유력하며 법을 묻고자 하였는데, 당시 고려와 원의 불교계가 활발히 교류하는 가운데 원나라의 불교계 및 불적을 찾아 유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蘇杭'이라 하여 해로를 통해 원의 절강성 소주 지역으로 입항하여 원나라를 유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의 '蘇杭'은 소주와 항주 지역이라는 '蘇杭'의 오자일 가능성도 있는데, 고범의 발문에는 『화엄경강요』를 '求得於南杭'이라 하여 항주 지역을 유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일은 원에서 구득한 『화엄경강요』를 고려 국내에서 간행코자 하였지만 시재를 얻지 못해 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1324년을 전후하여 계림부의 부윤으로 부임한 이천에게 의뢰하여 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천은 신일을 '공문우'라고 하였기 때문에 계림윤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불교를 통해 면식이 있었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천의 생몰은 미상인데 그는 1321년 원나라에 동녀를 보내는 일을 주관한 陽城君 이천으로 추정된다.[22] 1321년 1월 고려에서는 永陽君 李瑚를 원에 보내어 節日을 하례하였는데 이때 이천도 함께 파견하였다. 이천은 귀국 이후 1324년 무렵에는 '雞林尹匡靖大夫檢挍僉議贊成事'의 관계 및 관직으로 미루어 계림윤에 보임되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23] 그의 후손으로는 僉議評理를 역임한 李那海, 李春富가 있다.[24]

---

21)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는 의상계 화엄종을 강조하여 기록하는 찬술 태도가 확인된다. 또한, 가지산문계 태고 보우는 1326년(충숙왕 13)에 화엄선(華嚴選)에 합격하였고, 경전을 두루 연구하였다. 향후 선종계의 화엄교전 연구 경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고려사』 권35, 세가 35, 충숙왕 8년 1월 을유 조.

23) 東京留守官은 충렬왕 34년(1308)에 雞林府로 고치고, 尹·判官·司錄·法曹를 두었다(『고려사』 권77, 지 31 백관 2, 東京留守官).

24) 『고려사』 권125 열전 권38 간신, 이춘부 전.

이와 관련하여 발문의 마지막 문구에는 '切欲鋟梓遐傳 而未遇檀緣 越金雞臘月 李公承(이하결락)'이 보이는데, 신일이 판각하여 유통하려 하였으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金雞年 臘月, 즉 신유년(1321) 12월에 李公이 무엇을 받들었다는 내용이다. 이천이 받든 일의 내용은 결락으로 분명치 않지만 왕명을 받들어 원나라 賀節使로 파견된 일로 추정되고, 귀국 이후 신일과 연결된 내용이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일은 이천의 간행 지원을 통해 계림부의 관할인 안강현의 紫玉山 息菴에 거주한 古帆에게 발문을 얻어 1324년 1월 말부터 6월 30일경까지 판각을 종료하였고, 이어 인출하여 배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서의 제기를 쓴 고범은 자옥산 식암에 주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옥산은 현재의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산으로 추정된다.[25] 고범이 발문을 쓴 것은 대장로 신일, 계림윤 이천 등과 지역을 기반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을 정리하면, 고려전기 의천의『교장총록』에 수록된『화엄경강요』는 12-13세기 고려에 유통본이 없거나 전승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서는 신일이 1324년 이전에 수입하여 계림윤 이천의 후원으로 1324년 6월을 전후하여 간행되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된 현재의 전본이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본이자 국내외 간행본 가운데 최고본으로 불교문헌학적 가치가 크다.

4.『화엄경강요』의 동아시아 불교계 유통

『화엄경강요』의 현전본은 1324년 간행한 목판본 고려대본이 간행 최고본이고, 전존 최고본은 1289년(正應 2)에 필사한 金澤文庫 소장 필사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전존하는 양본을 통해『화엄경강요』의 성립과 전개, 나아가 동아시아 불교계의 유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5)『신증동국여지승람』권21, 경상도 경주부 산천 조, "紫玉山 在安康縣西十三里."

1) 중국의 『화엄경강요』 성립과 유통

징관이 9세기 전반에 『화엄경강요』를 찬술하였으나 간행 여부는 분명치 않다. 본서의 서명이 확인되는 첫 기록은 송대 찬영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988년(端拱 元年)에 편찬을 완료한 『송고승전』으로 여기에서는 징관의 『화엄경강요』 1권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26] 후대의 『화엄경강요』의 권수는 3권이라는 기록이 다수이므로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의 『화엄경강요』 관련 기록은 남송 1128년(建炎 2) 戒環이 편찬한 『大方廣佛華嚴經要解』이고, 그 서문에서 징관의 『화엄경강요』를 언급하는 한편 본문에서 활용하였다.[27] 또한 남송 觀復(1141-1152)은 『演義鈔會解記』(이하, 회해기) 10권에서 당대 배휴가 지은 「妙覺塔記」에 기록된 서명을 인용하였다. 이외 송대 인물로 추정되는 장수 자선의 법손인 智肱이 찬술한 「華嚴清涼國師禮讚文」에도 징관의 '華嚴綱要三卷'이라 기록하는 등[28] 『화엄경강요』는 송대에도 활용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제본의 저본이 간행본인지 혹은 필사본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송대 『화엄경강요』의 간행과 유통을 확인할 수 있는 본서의 지어 등 관련 기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D)-① 『大方廣佛華嚴經綱要』의 권말 지어

화엄경은 모두 3본이다. 진 의희 연간에 양주 謝司空寺에서 번역한 것은 60권이고, 당 무후 시에 우전의 것을 번역한 것은 80권이고, 덕종 정원 중에 번역한 것은 40권이다. 현수대사가 탐현기를 지어 먼저 의희 번역경을 해석하였고, 뒤에 청량대사가 소를 지어 우전의 정원 역경을 해석하였다. 또 그 추요를 가려 뽑아 강요 3권을 만들었으니 화엄의 묘리가 여기에서 다하였다. 의희와 정원의 역경은 오대의 병화를 입어 모두 산실되었고 오직 우전 번역경 만이 유전하여 지금까지 천하에서 독송하고 있다.

증조부 승상 신국공이 5부를 필사하였고, 돌아가신 부친[先公] 지부낭중께서 또한 일찍이 고쳐 필사[繕寫])하셨다. 지난번에 전당 상부사에서 일찍이 강요와

---

26) 『宋高僧傳』 권5(『大正新脩大藏經』 50, 737면), "允齊相請述華嚴經綱要一卷."

27) 『大方廣佛華嚴經要解』(『卍新纂續藏經』 8, 451면), "因取清涼國師綱要 與論校讐 別為斯解 以方山為正 清涼為助." 이하, 『만신찬속장경』은 『만신속장』으로 표기한다.

28) 「華嚴清涼國師禮讚文」(『만신속장』 74, 360면).

그 목판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뒤에 노략질을 당하여 불타고 훼손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선공이 매번 한탄하며 말씀하시기를 청량의 공업이 마침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셨다. 하루는 오강의 화엄원을 지나다 주지 원증대사 의화와 화엄을 담론하였는데 홀연히 강요를 꺼냈으니 바로 상부사에서 간행한 것이었다. 또 말하기를 이것 이외 다른 본은 없다고 하였다. 선공께서 이것을 얻으셨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급히 필사하여 판에 새겨 널리 전하고자 하셨으나 불행히 돌아가시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부 등은 심장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 선친을 추천하는 것을 생각하던 중, 피눈물을 흘리며 분주히 원증대사에게 그 책을 청하였고, 준은 죽을힘을 다해 집필하고 힘을 기울여 전체의 권을 마쳤고 공인에 명하여 간인하여 선공의 뜻을 이루었다. 이제 삼년상을 마치고 널리 반승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밝게 드러나 돌아가신 이에게 무한한 이익을 내리시길 바라며, 이 모든 염불과 수행의 공덕을 모아 선공의 귀의에 돌린다. 紹興乙亥十月丁亥十一日乙酉 孤哀子章溥濬濈濯 泣血題[29]

(D)-②『貞元新譯華嚴經疏』의 권말 지어

앞의『정원화엄소』20권은 대장에 빠져 없어진지 오래 되었다. 소흥 기사년(1149)에 원증대사 의화가 양공 어약에게서 이것을 얻어 오강의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 책을 꺼내고 아울러 모연하고 권화하여 판각하였지만 겨우 12권을 마쳤다. 선공 지부낭중이 마침 지나다가 원증대사와 화엄을 담론하다가『정원소』를 얻어 그것을 읽었는데 손에서 놓지를 못하셨고, 흔연히 원증대사를 재촉하여 그 8권을 채웠다.

또한『화엄경강요』를 얻어 또한 필사코자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 모두 이루지를 못하셨다. 부 등은 심히 애통하여 선고의 뜻을 이어 장인에 명하여 간인하였다. 상제를 마치고 스님들께 공양을 두루 베풀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양하여 후세인에게 두루 이익을 주고, 또한 이 복덕과 이익이 돌아갈 바는

---

29)「題記」,『大方廣佛華嚴經綱要』卷下, "華嚴經凡三本 晉義熙中 楊州謝司空寺之所譯六十卷者也 唐武后時于闐國之所譯八十卷者也 德宗正元中之所譯四十卷者也 賢首師爲探元記釋義熙之經於前 淸涼師爲疏以釋于闐正元之經於後 又撮其樞要爲綱要三卷 華嚴之妙盡於此矣 義熙正元之經中 更五代矣火大厄散亂失眞 惟于闐所譯獨得流傳到于今 天下誦之 曾大父丞相申國公手書五部 先公知府郎中 亦嘗繕寫 往在錢塘祥符寺 嘗見所謂綱要與其板存 後罹方寇 焚毁殆盡 先公每以歎恨曰 淸涼之功 遂墜地矣 一日過吳江華嚴院 主人圓證大師義和 因談華嚴 忽出綱要 乃祥符所刊者 且曰此外無餘本矣 先公得之失喜亟欲手書 鏤之板 以廣其傳 不幸大故 此志不遂 溥等哀痛屠割 思所以薦嚴考 泣血奔走 請其本於圓證師 濬忍死執筆 扶力終卷 命工刋印 追成先志 恭値外除 飯僧遍施 庶幾佛旨昭布 垂利亡窮 凡厥誦持 所集善勳 併爲先公之歸焉 紹興乙亥十月丁亥十一日乙酉 孤哀子章溥濬濈濯 泣血題."

돌아가신 이의 초생극락을 돕는 것이다. 紹興二十五年十月十一日 孤哀子溥濬溉濯泣血書[30]

위의 인용 자료 (D)-①의 『대방광불화엄경강요』 권말지어와 (D)-② 『정원신역화엄경소』(이하, 『정원소』)의 권말지어를 종합하면 『화엄경강요』를 간행한 것은 지부낭중 章公의 아들인 章溥, 濬, 溉, 濯 등이었다. 이들이 『화엄경강요』를 간행하게 된 것은 부친의 유업을 계승한 것이었다. 장씨 가문은 증조부 이래 『화엄경』을 필사하는 등 독실한 불교 신앙이 있었는데, 장부의 부친은 원증대사 의화가 『정원소』 20권 가운데 12권을 간행하자 나머지 8권을 시재하여 간행한 일이 있었다. 이후 吳江 지역의 화엄원에서 다시 원증대사 의화를 만나 화엄을 담론하는 가운데 의화가 대중상부사(이하, 상부사) 판본 『화엄경강요』를 보여주자 이를 간행코자 하였지만 마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에 장씨의 아들인 章溥 등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의화에게 부탁하여 그가 소장한 상부사에서 간행한 『화엄경강요』를 얻어 이를 저본으로 필사하여 1155년(紹興 25) 10월 11일에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부의 부친 장씨는 일찍이 전당 상부사,[31] 즉 항주의 상부사에서 『화엄경강요』의 판본과 그 목판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후 전란으로 금나라 군대에 의해 상부사의 『화엄경강요』 목판이 소실되자 이를 개탄한 일이 있었다. 그러던 중 오강 화엄원에서 의화와 담론하는 가운데 그가 보여준 상부사 간행의 『화엄경강요』를 보자 크게 기뻐하여 이를 간행하여 유통코자 하였다. 따라서 항주의 상부사에는 1149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목판에 새겨 간행한 『화엄경강요』가 있었고, 이 인본이 유통되어 의화가 소장하였음을 알

30) 『貞元新譯華嚴經疏』 권10(『만신속장』 5, 198면), "右正元華嚴疏二十卷 大藏闕亡有年所矣 紹興己巳 圓證大師義和得之於梁公御藥 鼎來吳江 例(傾)囊并勸緣鏤板 纔辨十二卷 先公知府良中 因過師談華嚴 得疏讀之 不能去手 欣然囑師 足其八卷 又得綱要 且欲手書 未幾傾背 俱不及成 溥等痛心泣血 追述先志 亟命刊印 式遇外除 飯僧徧(遍)施 闡揚佛旨 普益後人 福利所皈 畢助超往. 紹興二十五年十月十一日 孤哀子溥濬溉濯泣血書."

31) 錢塘은 본래 杭州 餘杭郡에 속하였고, 남송대 臨安府의 속현이 되었다(『宋史』 권88, 志 41, 地理 4, 臨安府). 祥符寺는 蕭梁初에 發心寺였고, 당대에는 龍興寺, 송 大中祥符 초에 대중상부사로 개명하였다(『龍興祥符戒壇寺志』 卷首序). 현재는 杭州市 延安路와 鳳起路의 교차지 서북쪽에 '龍興寺遺址'로 관리되고 있다.

수 있다.

항주의 상부사는 송대 화엄종을 중흥한 정원의 주석처였고 여기에서 정원은 현수교원을 세워 고려 의천과 장소를 교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①정원이 귀향하여 부모를 뵈었다. 천주 사람들이 청하여 천주의 淸涼縣에 주석하였다. 다시 吳 지역으로 출유하였는데 소주의 관장이 청하여 報忠寺의 觀音院에 주석하였다. 고 한림학사 沈公이 항주를 관장하였는데 또 대중상부사에 현수교원을 두고 그를 청하였다. 그 뒤에 다시 청돈의 밀인사 보각원, 화정의 보조사 선주각원에 주석하였는데 모두 秀州의 요청이었다. 다다른 곳의 도량에는 단월의 공급이 이르렀고 대중에게 공급하는 이외 모두 교장을 인조하였는데 널리 법재를 베풀려고 한 때문이었다. (…) 원우 초에 의천이 바다를 건너와서 유사를 통해 말하기를 법사에게 예를 올리고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였다. 조정에서 받아들여 상서랑 양걸을 파견하여 인반하여 법사가 있는 곳에 이르러 만났는데, 자리 아래에서 예를 올리고 앉아 옆에서 모셨다. 아침저녁으로 가르침을 청하여 1년여가 지난 이후에 귀국하였다.

지엄이 지은『화엄수현기』,『공목장』,『무성섭론소』,『기신론의기』, 賢首가 지은『화엄탐현기』,『기신별기』,『법계무차별론소』,『십이문론소』,『三寶諸章門』, 淸涼이 지은『正元新譯華嚴經疏』, 圭峰이 지은『華嚴綸貫』은 모두 교종의 현요인데 오대의 병화로 이미 망절된지 오래였다. 이에 이르러 의천이 정원에게 가지고 와서 의문을 자결하였다. 이미 일실한 전적이 세상 다시 행해졌으니 법사의 힘이었다. (…) 지금 진남 사도 呂公이 그와 방외의 맺음을 나누었다[方外之契]. 의천이 오게 되자 고 상서좌승 蒲公이 항주를 진수하며 비로소 법사를 알고서 그의 불학의 높은 뜻과 해행이 고명함을 찬탄하여 황제에 상주하여 혜인선원을 고쳐 교원으로 삼고 법사가 여기에 주석하기를 청하였다. 조사상을 조성하고 성현의 상을 그렸으며 아울러 불공과 용기 등은 모두 포공과 고위에 있는 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마련하였다. 교장은 모두 6백 함인데 의천이 비치한 것이다.[32]

---

32)「宋杭州南山慧因教院晉水法師碑」,『玉岑山慧因高麗華嚴教寺志』8(『中國佛寺史志彙刊』20, 149-153면), "還鄉省親 泉人因請住州之淸涼縣 復出游吳 蘇州請住報忠寺之觀音院 故翰林學士沈公守杭州 又於大中祥符寺置賢首教院以延之 其後復住靑墅之密印寺寶閣院 華亭之普照寺善住閣院 皆秀州請也 所泊道場 檀供遝至 給衆之外 悉以印造教藏 所以廣法施扶之施也. (…) 至元祐初 義天航海而至, 因有司自陳, 願禮法師, 親近承聽 朝廷從之, 遣尚書郎楊傑, 將會引伴至法師所 禮足席下 坐則侍側 不敢拘禮 朝聽夕請, 歲餘而後歸 雲華所造華嚴搜玄記 孔目章 無性攝論疏 起信論義記 賢首所造華嚴探玄記 起信別記 法界無差別論疏 十二門論疏 三寶諸章門 淸涼所造 正元新譯華嚴經疏 圭峰所造 華嚴綸貫 皆教宗玄要 五代兵火 久已亡絕 至是 義天持至

위의 자료와 같이 송승 정원은 천주 출신으로 오대산 등지를 유력하며 구법하였고 귀향하여 천주의 청량현, 소주의 보충사 관음원 등에 주석하였다. 이후 1062년(嘉祐 7) 항주지사에 보임된 沈文通(沈遘, 1025-1067)이 상부사에 현수교원을 두고 정원을 초청하였다. 정원이 상부사에 주석한 시기는 1062년 이후로 추정되는데, 특히, 정원은 1074년(熙寧 7) 상부사 현수교원에서 『華嚴原人論發微錄』을 편찬하였다.[33] 이로 미루어 그는 10년 이상을 상부사 현수교원에서 화엄종의 교학을 진흥하는 한편 소의 교전을 수집하여 교장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정원은 청돈의 밀인사와 화정의 보조사, 항주 혜인원에 주석하면서 교장을 인조하여 널리 보급하였다.[34]

또한, 정원은 화엄교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고려 의천과 교류하면서 화엄종의 교전을 수집하고 간행하였다. 의천은 1085년 4월에 송나라에 가서 1085년 8월에는 항주의 정원을 방문하여 상부사와 혜인원에서 불법을 교류하였는데, 이때 지엄, 법장, 징관, 종밀의 장소를 지참하였지만, 『화엄경강요』는 기록에서 찾아지지 않아 고려본이 없었거나 혹은 대표적인 장소만을 예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정원이 주석한 상부사의 현수교원은 화엄종의 소의교전을 수집하여 간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화엄경강요』는 정원이 주석한 1062년 이후 혹은 의천이 전래하였다면 1086년 이후 1149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는 정원의 화엄종 재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의천의 불전 전래와도 무관치 않겠지만 향후 새로운 관련 자료의 출현을 기다린다.

결국 1155년 당시에는 1149년 이전에 간행한 상부사 판본과 1155년 장부 등이 간행한 중간본이 병존한 셈이다, 이 가운데 고려와 일본에 유통된 것은 1155년 장부 등이 간행한 중간본이고, 이 전본을 고려후기 신일이 수입하여 1324년(충숙왕 11)에 필사하여 중간하였고, 일본에서는 앞선 1289

座下 咨決所疑 既佚之典復行於世 法師之力也 (…) 惟今鎮南司徒呂公與之為方外之契 及義天之來 故尚書左丞蒲公鎮杭 乃始識之 嘆其苦志佛學 行解高妙 奏改慧因禪院為教院 請師居之 造祖師像及繪聖賢相 并供具用器等 皆蒲公與在位者同力辦之 教藏諸部凡六百函 則義天所置也."

33) 『原人論發微錄』(『만신속장』 58, 718면), "時聖宋六葉歲次甲寅八月十一日於錢塘賢首教院序."

34) 吉田剛, 「杭州慧因院(高麗寺)における華嚴學の動向」, 『불교학연구』 8, 불교학연구회, 2004.

년에 필사하여 현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요나라 鮮演(?-1118)의 찬술인『大方廣佛華嚴經談玄決擇』은 의천이 수입하여 고려 흥왕사에서 1096년에 간행하여 송나라 및 일본에 전래되었다. 본서의 찬술 시기는 선연이 1089년(대안 5년)에 '圓通悟理'라는 법호를 하사받았는데,『담현결택』의 저자사항에는 '上京開龍寺圓通悟理大師 賜紫沙門 鮮演述'이라 하였기 때문에 개룡사에서 1089년에서 1096년 이전에 찬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5] 본서에서는『화엄경강요』가 4회 인용되었는데,[36] 의천은 요 황제를 비롯한 불교계와 일찍이 교류하면서『화엄경강요』를 전래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치 않다. 또한 元代 普瑞(?-?)가 편찬한『懸談會玄記』40권에도『화엄경강요』의 인용이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징관이 9세기에 찬술한『화엄경강요』는 중국에서도 시대를 달리하며 꾸준히 유통되었고, 화엄종의 저술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의『화엄경강요』전래와 유통

일본의『화엄경강요』의 전래와 유통은 현전하는 불교 장소 목록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징관이『화엄경강요』를 편찬한 이후의 목록으로는 圓超가 914년에 편찬한『華嚴宗章疏并因明錄』(이하,『원초록』), 925년의『山王院藏』[37], 永超가 1094년에 편찬한『東域傳燈目錄』(이하,『동역록』), 藏俊이 1176년에 편찬한『注進法相宗章疏』등이 있다.[38] 또한 法金剛院藏의『古聖教目錄』,『大小乘經律論章疏目錄』,『一切經論律章疏集(傳錄)幷私記』등이 있다. 특히 13세기의 일본 화

35) 박은영,『遼代 鮮演의『華嚴經談玄決擇記』의 연구와 역주』,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7, 34면.
36)『華嚴經談玄決擇』(『만신속장』 8, 35면).
37)『山王院藏』은『昭和法寶總目錄』제3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淸蓮院藏本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925년에 서사된 것으로 圓珍이 귀국한 뒤에 머물던 比睿山 山王院의 藏書目錄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화엄 관련 章疏는 다음의 7부에 그친다. 華嚴宗問答 2권, 華嚴經觀門骨目 1卷, 華嚴序注二本 2권, 화엄전기 5권, 華嚴文義綱目 1권, 華嚴指歸 1권, 華嚴經品出記 1권이다. 주로 밀교, 천태법화, 유식, 인명이 중심으로 종파적 입장이 반영된 章疏목록으로 추정된다.
38) 이외 入唐僧의 將來目錄으로서는 最澄의『傳教大師將來台州錄』,『傳教大師將來越州錄』, 空海의『御請來目錄』등이 있다.

엄 장소에 대해서는 고산사의 소장 목록인『高山寺聖教目錄』(이하,『고산록』)이 있고, 이어 東大寺 凝然(1240-1321)의『華嚴宗經論章疏目錄』을 들 수 있다.[39] 이상 일본의 여러 목록 가운데『화엄경강요』유통을 추정할 수 있는 첫 기록은 고산사의 義淵房 靈典(1180-1255)이 1250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高山寺聖教目錄」이다. 이『高山寺聖教目錄』은 영전이 1250년(建長 2)에 後嵯峨院(1220-72, 재위 1242-1246)의 명에 의해 찬진한 것이다. 이 목록에는 '華嚴綱要 三卷 澄觀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화엄경강요』는 필사본이 아닌 1155년에 간행한 남송 판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0] 영전은 明惠(1173-1232)의 교단에서 喜海(1178-1250)와 함께 활동한 인물이었다.

다음의 유통 기록은 12-13세기에 활동한 일본 정토종 개조 法然房 源空(1133-1212)의 법어를 후대 了惠가 1274년에 집록한『黑谷上人語燈錄』이다. 법연의 어록인『흑곡상인어등록』권10「淨土初學鈔」의 '諸宗經疏目錄'의 '華嚴宗' 부에 징관의 찬술로 '華嚴綱要三卷' 이외 貞元新譯華嚴經疏, 華嚴法界玄鏡, 華嚴略策, 行願品別行疏, 三聖圓融觀門, 十二因緣觀門, 五蘊觀門, 答皇太子所問心要, 華嚴刹海變相讚, 答複禮法師頌, 證道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 '以上澄觀述 出圓宗文類 已上出東大寺圓超録 此宗章疏雖多 今取其要不過于此 此等法門中五教十宗十玄六相等法文義雖廣而不演往生極樂之事 是非西方指南也'라고 기록되어 있다.[41] 즉, 징관의『화엄경강요』의 서명이 의천의『원종문류』에 실려있고, 또한『원초록』에 기록되어있는 것과 같이 기술하였다.

『흑곡상인어등록』은 요혜(1243-1330)가 집록한 것으로 여기의「제종경소목록」에 기록된 징관의『화엄경강요』3권은 法然이 직접 보고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요혜가 별도로 집록하는 가운데 기록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현전『원초록』에는『화엄경강요』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동대사의 원초가 914년에 편찬하였기 때문에 1088년에 의천이 편찬한『원종문류』가 수록

39) 박용진,「東アジア漢文佛教文化圈の華嚴章疏の傳承と現狀 -『新編諸宗教藏總錄』と日本章疏目錄の比較を中心に」,『불교학연구』57, 불교학연구회, 2018, 29-31면.
40) 奧田勳,「高山寺聖教目錄」,『高山寺經藏古目錄』(高山寺資料叢書第14冊), 東京大學出版會, 1985. 283면에서 남송 판본의 목록으로 추정하였다.
41)『黑谷上人語燈錄』권10(『대정장』83, 164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현전『원종문류』는 권1, 권14, 권22의 전체의 내용이 남아있고, 기타 저술에 일부 인용이 있지만『화엄경강요』에 대한 서명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제종경소목록」이『원종문류』를 통해『화엄경강요』를 인용한 것이 정확하다면 의천은 1090년『교장총록』을 편찬하기 이전인 1088년 무렵『화엄경강요』를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원종문류』를 인용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법연은 화엄종의 景雅(1103-1185)로부터『원종문류』를 받았기 때문에[42]『원종문류』권22에서 '華嚴刹海變相讚, 答複禮法師頌, 證道頌' 등을 인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요혜가 집록한『흑곡상인어등록』은 1274년(文永 11)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법연 소장본의『원종문류』를 참고하면서 고산사의 목록이나 실물을 보고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은 목록이나 찬술에서 서명이 인용된 것이지만 실물『화엄경강요』의 현전 최고본은 1289년(正應 2)에 필사한 기록이 있는 일본 금택문고 소장 필사본 2종이다. 필사기를 쓴 지조는 1289년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武州 金澤, 즉 현재의 칭명사에서『화엄경강요』를 강의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양본은 강의를 위해 필사 활용된 셈이다. 한편 지조의 스승인 응연(1240-1321)이 편찬한『화엄종경론장소목록』에는『화엄경강요』3권이 기록되어 있다.[43] 또한 응연이 1295년(永仁 3)에 편찬한『華嚴法界義境』권하 '第九 所憑典籍'에는『화엄경강요』3권이 기록되어 있다.[44] 응연이 1300년에 편찬한『화엄오교장통로기』에도『화엄경강요』가 인용되어 있다.[45] 이로 미루어 응연 역시 1300년을 전후하여 활용하였고, 응연을 계승한 지조 역시 이를 활용하여 칭명사에서 강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본의『화엄경강요』유통은 남송대 장부가 1155년에 간행한 이후

---

42) 大橋俊雄,「法然上人行狀繪圖第四」法然上人伝上 法然全集別卷1, 日本 東京 春秋社, 1994, 26-27면 (박용진,「11-12세기 圓宗文類의 유통과 동아시아 불교교류」,『한국중세사연구』25, 한국중세사학회, 2008, 6-7면 재인용).

43)『大日本仏教全書』1,「仏教書籍目録」1, 仏書刊行会, 1913, 249면.

44)『華嚴法界義境』권하(『大日本仏教全書』13, 仏書刊行会, 1914, 301면).

45) 林鳴宇·馬淵昌也,『華嚴經綱要校釋』, 上海辭書出版社, 2017.

원대 1250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일본 고산사에서 남송 판본을 수입하였고, 이후 13세기에는 고산사계 및 동대사계를 통해 활발히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화엄경강요』는 당나라의 고승 청량 징관이 9세기 초에 편찬한 화엄사상의 핵심 요해서로, 화엄경의 사상적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이다. 오랫동안 일본 금택문고에 소장된 2종의 필사본만이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14세기 고려 후기 간행 목판본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고려대 소장본은 1324년 고려의 승려 神旧이 원나라에서 가져온 판본을 바탕으로 계림부윤 이천의 지원 아래 간행된 것으로, 남송 시대 章溥의 간행 기록과 고려 古帆의 발문이 함께 실려 있어 문헌학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이 판본은 일본 금택문고의 필사본과 비교할 때 오류가 적고 정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남송대 『화엄경강요』 판본의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본에 전해진 『화엄경강요』는 12-13세기 경 고산사에 전래되었고, 이를 저본으로 13세기 후반 칭명사의 승 지조가 강학용으로 필사한 사본으로, 이체자와 통용자가 많지만 교정 기록이 있어 원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서는 고산사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사찰에서 유통되며 화엄학 연구에 활용되었음을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헌의 동아시아 전파 경로를 살펴보면, 당나라에서 편찬된 후 송나라에서 활용되었고, 특히 의천과 교류한 정원이 주석한 상부사에서 11세기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송의 화엄종 혜인사계 의화가 소장한 상부사본을 저본으로 1155년 장부에 의해 재간행되었고, 이 판본이 고려와 일본에 수입되었다. 이 보다 앞서 고려에서는 1090년에 대각국사 의천이 『교장총록』에 그 서명을 기록하였는데, 11-12세기 고려시대의 활용은 보이지 않고,

이후 14세기 원나라에서 남송대 1155년 간행한 판본의 수입이 이루어졌다. 이외 요나라와 원나라의 불교 문헌에서도 이 책이 인용된 것으로 미루어, 당·송 이후『화엄경강요』가 지속적으로 활용 및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확인된 1324년에 간행한 고려대 도서관 소장의 고려본이 국내외 간행본 가운데 최고본으로 불교서지학적 가치가 크다. 향후『화엄경강요』의 고려대본을 중심으로 금택문고본의 대교 및 교감을 통해 정본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원 간섭기인 14세기『화엄경강요』간행의 사상적, 사회적 배경, 여·원 불교계 교류 상황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를 통해 화엄 전적과 사상의 교류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高麗史』
『大覺國師文集』
『大覺國師外集』
『大方廣佛華嚴經綱要』
『宋高僧傳』
『新增東國輿地勝覽』
『玉岑山憓因高麗華嚴教寺志』
『原人論發微錄』
『貞元新譯華嚴經疏』
『華嚴經談玄決擇』
『華嚴法界義境』
「華嚴清涼國師禮讚文」
『龍興祥符戒壇寺志』
『黒谷上人語燈録』

고려대장경연구소편, 『新編諸宗教藏總錄 : 收錄文獻 總覽』, 고려대 장경연구소출판부, 2019.
박용진, 「고려 教藏의 고려 및 조선시대 유통과 전승」, 『서지학연구』 83, 한국서지학회, 2020.
박용진, 「고려시대 教藏의 송·요 불교계 交流와 전승」, 『북악사론』 13, 북악사학회, 2021.
박용진, 「高麗 義天撰 『新編諸宗教藏總錄』과 동아시아의 華嚴 章疏」, 『한국학논총』 42,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4.
박용진, 「東アジア漢文佛教文化圈の華嚴章疏の傳承と現狀—『新編諸宗教藏總錄』と日本章疏目錄の比較を中心に」, 『불교학연구』 57, 불교학연구회, 2018.
박용진, 「11-12세기 圓宗文類의 유통과 동아시아 불교교류」, 『한국중세사연구』 25, 한국중세사학회, 2008.
박은영, 『遼代 鮮演의 『華嚴經談玄決擇記』의 연구와 역주』,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7.
최애리, 『『신편제종교장총록』 수록 교장 현존본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20.

鎌田茂雄, 『中国華厳思想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70 제2쇄.
亀川教信, 「金沢文庫華厳逸書に就て」, 『龍谷学報』 309, 1934.
吉田剛, 「杭州憓因院(高麗寺)における華嚴學の動向」, 『불교학연구』 8, 불교학연구회, 2004.
大橋俊雄, 「法然上人行狀繪圖第四」 法然上人伝上 法然全集別巻1, 日本 東京 春秋社, 1994.
『大日本仏教全書』 1, 「仏教書籍目録」 1, 仏書刊行会, 1913.
文化廳文化財部美術學藝課, 『稱名寺聖教目錄(1)』, 平成十八年(2006)三月.
奥田勲, 「高山寺聖教目錄」, 『高山寺經藏古目錄』(高山寺資料叢書第14冊), 東京大學出版會, 1985.
林鳴宇·馬淵昌也, 『華嚴經綱要校釋』, 上海辭書出版社, 2017.

【Abstract】

The Publication and Circulation of Huayan jing gangyao (華嚴經綱要) in Late Goryeo and and East Asian Buddhist Networks

Park, Yong-Jin*

The Huayan jing gangyao (華嚴經綱要) was compiled in the early 9th century by the Tang Dynasty Huayan patriarch Chengguan (澄觀). Until recently, only two manuscript copies preserved in Japan's Kanazawa Bunko were known to exist. However, a newly discovered 1324 Goryeo woodblock-printed edition at Korea University Library—containing a 1155 postface by Southern Song Zhang Pu and a 1324 postface(跋文) by Goryeo monk Gobeom—has drawn significant academic attention for its philological value and importance in studying East Asian Buddhist exchange.

The text spread from Tang(唐) through the Song(宋) Dynasty to Goryeo and Japan. In Goryeo, National Preceptor Uicheon included it in his *Gyojang-chonglok*, while a 14th-century edition was reprinted using Yuan Dynasty imports. In Japan, it was transmitted through 13th-century institutions like Kosan-ji and used at Shomyo-ji, with citations also appearing in Liao and Yuan Buddhist texts, demonstrating its role as a core text for Huayan studies across East Asia.

As the only extant woodblock edition worldwide, the Korea University copy enables comparative studies with Kanazawa Bunko's 1289 manuscripts to reconstruct a critical edition. This study provides fundamental material for tracing the transmission of Huayan texts and thought across Tang-Song, Goryeo, and Japan, offering new insights into the East Asian Buddhist intellectual network.

Keywords: *Huayanjing gangyao*(華嚴經綱要),Uicheon(義天),Gyojang-chonglok(敎藏總錄), Chengguan(澄觀), Zhang Pu(章溥), Jinyuan(淨源), Yihe(義和)

접수일: 2025.03.26. || 심사일: 2025.05.14. || 게재확정일: 2025.05.14.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